



변화하는 환경, 화합과 새로운 도약, 경기남지회

경기남지회는 2006년 3월 정기총회에서 주영민 지회장이 선임되어 그동안 지회를 이끌어 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의 관심사 및 지역공동현안에 대한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대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지회장직 신설 및 법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무소별 1인의 간사 선임을 검토 중이며, 또한 지사 및 개인사무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변화하는 업계 현황을 공동 대처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친목 속 싹트는 서로의 정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기남지회는 26개의 법인지사, 15개의 중소기업지사 및 79명의 개인사무소를 비롯하여 소속회원수 총395여 명을 회원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지회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남지회 회원들의 지사 및 개인사무소는 주로 수원, 분당, 및 안양을 그 본거지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북부지역인 일산, 의정부를 그 본거지로 하고 있는 경기북지회와 수도권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회원사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공유가 어느 지역보다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골프모임인 남평회(남부지역 평가사 모임)를 통하여 매달 모임을 개최하여 왔으며, 2006년 6월에는 제2회 경기남지회장배 골프대회를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하여 김상윤 협회장님과 박강수



부회장님 등을 비롯한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성대히 치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회원단합의 장으로 자리 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에 위치한 광고산 등반을 개최했다.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며 2시간에 이르는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였고 산 정상에서의 행운권 추첨 이벤트와 산행 후 보리밥집에서의 숯불 바비큐와 함께 동동주 한 잔은 산행 후에만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이였다. 평일에 개최한 관계로 산행에 동참하지 못했던 회원들이 나중에 속속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경기남지회

아울러, 우리 경기남지회는 변화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중국 홍콩강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년 상호간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홍콩강성의 자산평고협회를 방문하여 중국의 감정평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감정평가지에 이미 기고한 바 있고, 2006년 10월에는 한국에 방문한 홍콩강성의 자산평고협회 임직원들과 협회 및 지회를 방문하여 한국의 감정평가 현황 및 기법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의 장을 마련했다. 이어 방문한 화성시 동안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역동하는 한국발전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경기남지회는 그동안 법인별, 사무소별로 차이를 보였던 법인 및 담보평가 예비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수원, 분당, 안양 권역별로 합리적인 예비규정을 마련하였고, 평택지원

의 예비규정 관련 회원들의 민원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예비규정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2007년 11월, 법원감정인 선정과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법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무소간의 인원배정건과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휴일에도 회의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매년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안에 따라 평가업무의 사회적 공공성에 따른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업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개정으로 우수감정평가법인의 요건을 강화했다.

대형화 등 업계의 구조개편으로 변화하는 업계의 환경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우수법인 검증방안과 법인간의 과당불공정 경쟁방지를 통한 건전한 평가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앞서 업계 내부적으로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와 단합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지역공동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와 친선도모를 위해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상설화하여 일상의 업무에서만 만났던 회원들이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려 업계의 동지로서 한바탕 웃고 뛰놀 수 있는 만남을 통해 단합할 수 있는 풍토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단합과 결속이 전제되어야 현재의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기남부지역의 부동산 전문자격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지회의 현안이 바로 업계의 현안임을 인식하고 긴밀한 협의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차원의 부동산 현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